

정말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닌가 보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지난 3일 서대문구 가좌역 구내 수색방면 철로 45미터 구간의 지반이 붕괴됐다. 이번에 발생한 철로지반 붕괴사고 역시 한라대교 안전불감증 사고로 확인되고 있어 충격을 준다.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오늘도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탄다

경철도 이번 사고가 공사장 활기등을 보강하며 옹벽을 지지해 주는 강철선이 끊겨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부실설계 등 다각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좌역 인근 주민들은 일주일 전부터 이유 없이 상가건물 유리창이 깨졌고 가게마다 바닥에 금이 가는 등 눈에 띄는 붕괴조짐이 있었

행을 운몸으로 막았다고 한다. 열차를 세우고 대피하지마자 붕괴가 시작된 어이없는 인재였다.

한번 뒤돌아 보자. 이번 사고가 뭘든 하면 된다는 식의 구시대적 성과주의와 소용부재에서 온 것이 아니다. 빨리 빨리와 대중 그리고 적당주의와 이기심이 혼합된 여처구니없는 사고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사회는 점차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간다. 우리 의식 또한 그기에 맞춰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연초에 서울복지재단이 실시한 세계 10대 도시 행복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계 주요 도시 시민 중 서울시민이 생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린다 해도 삶의 질이 어디 뻥뻥이겠는가. 선진국이란 거창한 구호의 쓸쓸한 이면이다. 이제라도 공공의식과 책임감 있는 의식혁명이 요구된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사고 직전 수색역에서 출발한 회송열차를 급정거 되었던 점이다. 10명의 작업인부들이 사고 현장주변을 지키다 열차 운

불자의 눈

여름 수련회, 가족이 함께

일상은 늘 고통스럽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은 즐겁고 행복하기 보다는 바쁘고 권태롭고 따분하고 짜증나는 시간이 더 많다. 일상을 움직이는 것이 중생심이라서 그렇다. 중생심이란 바로 갈망하는 마음이다.

중생심이 지배하는 일상이 평온하고 안락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행복하기 위해 살면서도 늘 불행의 씨앗을 품고 사는 것이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온하고 안락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중생심을 버리면 된다. 그러나 과연 간단한가? 옛 선사들은 "망상을 버리려고 애쓰는 그 마음도 망상"이라고 했다. 중생심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마저 중생심이라면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듯 일상의 고통을 떨쳐 버리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일상을 꾸려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순간순간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중생심이 빠지지 않는다. 탐심으로 들끓는 마음을 제어하고 평상심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을 기른 사람은 탐욕이라는 수렁에 빠지지 않고 평상심으로 살 수 있다.

문제는 부단한 자기 수행이다. 자기의 삶을 세속적으로 이끄느냐 탈속적으로 이끄느냐에 대한 신념과 정진이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는 것이다. 탐욕과 갈망에 물들지 않는 평상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 '마음공부'를 지어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그 길은 처음에 제대로 안내 받아야 하고 그 다음은 스스로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한다.

전국의 사찰에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된다. 템플스테이 문화는 이미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찰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사찰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깨침의 삶을 이끄는 프로그램들은 중생심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탈속적인 삶의 기쁨을 맛보여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올 여름에는 사찰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자.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 길인가를 진지하게 물어봐 보자.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주변 사람들과 갖가지 상황들을 점검해 보자. 과연 좋은 인연을 맺으며 선근을 기르는 살인가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해 보자. 자기를 철저하게 볼 때 주변 사람과 모든 상황들도 명료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한 시간이 자기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 변화의 힘은 행복 에너지로 전화되어 날마다 즐겁고 평온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무엇보다 올 여름 템플스테이는 가족과 함께 참가할 것을 권하는 바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라. 자신에게는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공부에 지친 자녀와 가사에 지친 주부 직장 일에 지친 가장... 따지고 보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친 일상에 허덕이고 있다.

올 여름 온 가족이 사찰을 찾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지친 삶을 살고 있나?' 진지하게 질문해 보라.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 그 답이야말로 자성을 깨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15.학교 내 종교차별 사라져야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사학 교직원 특정 종교인 채용 관행 국민 기본권 침해"

평등한 사회는 인류가 꿈꾸는 세상이다. 폭력적이거나 강제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에 부당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 못 살아도 다 같이 못살고 힘들어도 다 같이 힘들면 참을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송실대에 채용강요 학칙개선을 건의하는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

원 입문 시 자격조건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자기 문제나 국민의 권리 침해로 생각해 보지 않은 국민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설사 원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했다 해도 '사립학교'라는 불확실한 개념 때문에 '그 사람들 원래 그래' 하고 애써 잊어버려 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저 관행으로 넘겨버리거나 대표적인 종교차별

서의 종교차별을 생각해 보자. 아직 종교사학에서의 특정종교 강요는 여전히 더욱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강의석군의 단식으로 얻어낸 개선 결과라면 대광고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차별 시정권고를 따라 '학생회 임원은 기독교인이거나 한다'는 규정을 없앤 것이다. 모든 국민이 환영했던 점으로 다행스런 결정이었다. 일부 학교에서 선교부장 등의 특별한 간부직을 두는 곳이 있어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차별규정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교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은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종교사학들이 교

이자 인권침해로 인한 논란이 제기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며, 수십 년 동안 사회문제화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의아할 뿐이다. 공개적으로 특정종교 자격조건을 내걸지는 않는다 해도, 일부 종교사학은 '인사위 심의'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는 등 공개전형 절차 자체를 밟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비공개로 교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사회적 비난을 피하면서 특정종교인만을 편법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이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올해 초 기독교 재단인 동두천 비영리교가 정교

평등한 사회는 인류가 꿈꾸는 세상이다. 폭력적이거나 강제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에 부당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 못 살아도 다 같이 못살고 힘들어도 다 같이 힘들면 참을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서로간의 불신 때문에 세상은 평온할 수가 없다. 무엇이 '차별'인가. 간단하다.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즉, '차이=불편 또는 불이익'인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종, 지역, 신분, 성, 장애, 외모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종교로 인한 차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등권'이 공허한 법조문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은 왜일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능력과 무관하게 종교 등을 이유로 알게 모르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신교의 독선으로 인해 타종교인들과 무종교인들이 크고 작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독교인들은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다종교 국가 중 한국만큼 비기독교인으로 사는 데 불편을 느끼는 나라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우선 '교육현장'이라는 특수한 공공영역에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탠드 마이크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고성능 탁상마이크
법당전용 스피커
高音質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소리공양 종목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호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길
수용자 孝 문학작품
누군가와 함께라면
판/매/합/니/다
수용자들에게
효 사상을 고취하고
가족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위기를 위하여 공로했던
수용자 효 문학작품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2권 구매시 BBS장주부흥교방송
만문집 CD 또는 티인 증정
문의 및 구입안내 : (043) 732-5560 대성사
1권 구매시 12,000원 2권 구매시 23,000원